삼분법에 기초한 국민의 묘한 힘과 선택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난달 7일 조계사 한국불교 국제회의장, 노무현 대통령 추모심포지엄에서 발제와 토론 중에 저는 새롭게 실천해야 할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결국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종합하면 첫째로 요지부동의 33%, 곧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구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로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무조건 옛것만 고수한답니다. 이를 변치 않는 상수(常數)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의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얼기설기 엉켜있습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인데 이들 또한 33%, 곧 3분의 1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동층 상수(常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진보진영은 개성과 주장이 강해 철저한 반면, 일치되지 못한 채 늘 갈라져 있답니다. 그래도 위기에는 힘을 모아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신념과 뜻이 강해, 요지부동의 수구기득권의 3분의 1에는 못 미치고 4분의 1(25%) 또는 5분의 1(20%), 6분의 1(16.7%) 등으로 나뉘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진보진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른바 유동층, 또는 부유(浮游)층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군중이랍니다. 이들도 33%, 곧 3분의 1정도가 된답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변수(變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군중, 이들의 향방과 선택에 따라 선거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 수는 12,014,277이며 이회창 후보의 득표 수는 11,443,297표였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 수 11,492,389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보다 521,888표가 적고, 이회창 후보 보다는 49,092표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는 5년 동안의 시차와 유권자 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회창 후보보다 득표 결과는 사실상 낮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는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말하자면 3분의 1의 유동층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의 유동층 중 대부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뜻밖의 죽음을 접하고서는 다시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문객 500여만 명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바로 세 번째 유동층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變數)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함께 했던 이 군중은 언제든지 또다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묶어내는 힘이 요구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치와 연대 결속의 때임을 새삼 깨닫고 지혜롭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군중이(비록 대사제들의 선동에 의해서였지만) 180도 돌변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박아" 라고 외쳤던 사실에 대해 늘 의아해 하고 있으며 특히 조 · 중 · 동의 거짓 보도에 휘말리는 군중을 대할 때에는 더욱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저는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격언에 대해 때로는 깊은 회의가 듭니다.

그런데 그 군중을 변덕쟁이라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군중의 선택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이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변덕쟁이 33% 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향방에 따라 우리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의 선택을 통해 '국민의 위대함' 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역사향방의 '결정권' (casting vote)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는 3분의 1의 변수 군중이 좌우한다는 설명에 관심을 갖고 전체를 변혁하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3분의 1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현실적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흔히 강조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all or nothing)식의 흑백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가능성 3분의 1에 대한 정성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 근원적 변화를 꿈꾸며 3분의 1이라는 변수(變數)에 새삼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고자 합니다.

개인의 수덕과 해탈과정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뿐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무관한 중간적 요소(neutrum), 곧 삼분법적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삼분법은 이분법 사고에 젖어있는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는 스승이며 길잡이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변수의 군중에게 더욱 가까이 진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8 · 15 광복절과 함께 순국선열, 민주통일 선구자들을 기리며 〈희망세상〉 독자 분들과 모든 분들의 영육 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표지 – 캘리그라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8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이호룡, 이종률, 황정옥, 현종철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삼분법에 기초한
국민의 묘한 힘과 선택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그 숨결 그 아픔,
해남에서 시인을 만나다 | 김기선

14 기획연재 _ 민주시민교육 학습공동체
시장과 인문학 | 곽형모

20 특별기고
한국의 직접 · 참여 민주주의 현황 | 이호

26 사업회 소식
함세웅 이사장, 전태일재단 개소식 참석
베를린자유대 인턴 사원, 연구소 근무
'민주화운동학술연구' 중간보고회 열려

30 문화초대석
사라진 활판인쇄 되살린
'활판공방' 박한수 대표 | 윤승일

36 게시판

40 독자마당